

부(父)와 모(母)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과 자녀 훈육방법과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Quality of Life and the Parental Disciplinary Practices*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
전임강사 문혁준

School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 Hyukjun Moon

목 차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o what extent mothers and fathers differ in their disciplinary practices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quality of life and the parental disciplinary practic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220 parents(220 mothers and 220 fathers) of 5-6 years of children in Pusan.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tests were used for data description and analysis.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quality of life by fathers and perceived quality of life by mothers.
2.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fathers and mothers in relation to perceived quality of life. Fathers perceived their quality of life more highly than did mothers.
3. There were positive relations between parental educational level, household income and quality of life .
4.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fathers and mothers in relation to disciplinary practices. Fathers exhibited more effective disciplinary practices(including less overreactiveness and less verbosity) than did mothers.
5. There were no relations between parental educational level and disciplinary practices, but household income was only related to maternal disciplinary practices.
6. There were positive relations between quality of life and disciplinary practices. The higher parents

* 이 논문은 1999년도 가톨릭대학교 정착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perceived their quality of life, the more parents exhibited effective parental disciplinary practices.

I.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활의 질적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생활환경의 질에 관련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생활환경의 질을 삶의 질, 복지, 행복, 만족감 등으로 대체 사용하고 있다(김재경·문숙재, 1992).

생활환경의 질은 인간 생태학적 측면에서 인간과 변화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이러한 상호작용 가운데 인간이 지각하는 생활 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측면에서 정의된다(Bubolz et al., 1980; Park, 1992). Andrews와 Withey(1976)는 생활환경의 질을 사람들이 결혼이나, 가족, 주거, 직업, 친구, 이웃, 건강과 같은 각 생활영역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복지 수준으로 보았으며, Diener(1984)의 생활환경의 만족에 대한 정의는 인간이 생활 전반을 통해 가지는 기대와 성취수준 간의 차이 그리고 개인이 기대하는 삶에 대한 각각의 표준에 의해 정해지는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나 경제복지의 주관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위의 정의에 근거하여 가족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담당하는 부모 자신의 생활만족 여부는 가정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Park, 1992). 특히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자녀 양육태도(문혁준, 1998)는 부모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몇몇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즉 민현숙과 정영숙(1998)은 아버지의 생활 만족 수준이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으며, 기혼 여성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자녀의 인성발달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고하였다(최외선·송현숙, 1991).

생활 환경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보면 성별에 따른 삶의 질은 연구자에 따라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Andrews & Withey, 1976; Glenn, 1975; 김명자, 1982), 학력과 가정소득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하재구, 1986; 장병옥, 1997). 또한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는 삶의 질과 정적인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태도에도 주요한 변인으로 제시되었으며(Webster-Stratton, 1990; Lerner & Galambos, 1985), 자가소유 여부(성혜영·임정빈, 1994), 건강만족도(Park, 1992),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김재경·문숙재, 1992)들도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아울러 이종숙(1989)의 연구에서는 자기평가변인과 생활만족도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인간의 발달 과정 맥락에서 유아기는 환경에 매우 민감한 시기이며, 가장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시기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유아기 생활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기 가정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즉 유아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따른 만족감과 개인적 자아실현을 추구하게 되며(최규련, 1993), 인간의 기본 인성 형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양식을 터득하게 된다(이광규, 1989).

유아기의 가장 밀접한 미시 환경인 가정 환경 내에서도 유아의 생활 전반에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무엇보다도 크며, 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부모의 훈육방법은 아동의 성장 및 발달 전 영역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동은 부모의 훈육을 통하여 주의 깊게 행동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되며, 이웃과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예측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되며, 또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칙들의 준수 방법 등을 이해하게 된다(Allen & Majidi-Ahi, 1989; Willis, 1992).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 양육태도는 성장 후 대학생이 되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문혁준, 1999a).

부모훈육방법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하나는 긍정적 정서(Bringen & Robinson, 1991), 아동중심(Gest et al., 1993), 긍정적 강화(Patterson et al., 1992), 귀납적 훈육방법(Hart et al., 1992), 권위적 또는 민주적 방법(Baumrind, 1973) 등으로 표현되는 긍정적이며 효율적인 부모 훈육방법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다. 즉 힘에 의존하지 않고 귀납적인 부모 훈육방법 밑에서 성장한 자녀는 덜 과격한 실외놀이 행동을 보이며, 더 친사회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친구들로부터 선호의 대상이 될(Hart et al., 1992)뿐만 아니라 감정이입능력과(Krevans & Gibbs, 1996) 문제해결능력에서 뛰어나다(박영애·황옥경, 1997). 반면 비일관적이며, 처벌적이고,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는 문제행동 및 공격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cCord et al., 1961). 또한 공격적이며 비사회적이고 불순종적인 아동의 부모는 대부분 언어 표현에 있어 장황하고 강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atterson, 1976; Snyder, 1977), 자녀에게 보여주는 부모의 과잉반응적인 훈육방법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Arnold et al., 1993).

이처럼 아동 발달에 있어 주요한 요인의 하나인 부모훈육방법은 여러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언급되어 왔다(Belsky, 1984; 문혁준, 1998). 한 예로써,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높은 부모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낮은 부모보다 자녀에게 더 민주적이며, 비처벌적이고, 더 아동중심적인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자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이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또한 애정과 관심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여러 선행 연구에서 보고되어 왔다(Fox, 1995; Gecas, 1979; Skinner, 1985; Maccoby, 198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연구에 비해 국내의 부모훈육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관련된 실증적 연구가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현대사회가 산업화되고 기혼여성의 취업이

나날이 증가됨에 따라 가정 내에 존재하던 전통적 부모 역할과 책임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부-자녀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아동의 전생애에 걸쳐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Clarke-Stewart, 1978, 1980; Lamb, 1997; 최경순, 1993)과 함께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Lamb, 1986; Bridge et al., 1988). 이러한 맥락에서 아버지의 적극적인 자녀양육 참여가 요구되어 왔으나(Bergen, 1990), 실제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여전히 적다는 연구결과들(최경순, 1993; Crockett et al., 1993) 감안할 때 아버지 역할과 자녀양육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되는 연구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지금까지의 아버지와 관련 지어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자녀 상호관계는 어머니-자녀 상호관계와 비교하여 수·양적인 측면과 활동유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양육자로서의 유능성은 어머니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주리, 1994). 반면에, Kawai(1981)는 자녀훈육에 있어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더 이성적이며 엄격하고 명확한 준거를 기초로 자녀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문혁준(1999b)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훈육에 있어 덜 엄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신체적인 처벌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허용하는 경향이 높으며(Holden & Zambarano, 1992), 어머니는 힘에 더 의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아버지와 달리 아동의 행동을 좀 더 귀납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rt, 1994).

이상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또는 양육(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다룬 연구는 많지만, 생활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서 생활환경의 질과 부모훈육방법을 관련 지어 이루어진 연구는 전무하며, 또한 가족맥락에서 부(父)와 모(母)를 동시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아버지의 훈육 방법과 어머니의 훈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생활환경과 훈육태도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교 분석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생활만족도와 훈육방법과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 부모 훈육방법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접근하고 있는 기술적인 부모 훈련 차원에서 벗어나, 원인 분석을 통한 근원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교육에서 아버지교육이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아버지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I. 부(父)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과 모(母)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간에 관계가 있는가?
- II. 생활환경의 질을 지각하는데 있어 부(父)와 모(母)간에 차이가 있는가?
 - II-1.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라 부모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에 차이가 있는가?
 - II-2. 가정의 소득에 따라 부모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에 차이가 있는가?
- III. 자녀훈육방법에 있어 부(父)와 모(母)간에 차이가 있는가?
 - III-1.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라 자녀훈육방법에 차이가 있는가?
 - III-2. 가정의 소득에 따라 자녀훈육방법에 차이가 있는가?
- IV. 부(父)와 모(母)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과 자녀훈육방법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유치원에 자녀를 취원시키는 아버지(220명)와 어머니(220명) 220쌍이다. 부산 시내 소재 4개 유치원을 선정하여 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아동의 귀가시간을 이용하여 250부(아버지용 질문지 250부, 어머니용 질문지 250부)의 설문지가 가정으로 보내졌으며, 각 반 담임교사에 의해 총 235쌍의 질문지가 회수되었다. 이 중에서 부실한 응

답이 있거나 한쪽의 부모만이 답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220쌍의 질문지(아버지·어머니 포함)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분석 대상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또한 아동의 특성은 남아 59.5%(131명), 평균 연령 6.18세(SD=.65)이었으며, 출생 순위가 첫째인 아동이 56.4%(12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100~199만원이 51.4%(113세대), 200~299만원이 27.3%(60세대)로 조사되었다.

2. 연구 도구

1) 부모 훈육 방법

부모 훈육 방법에 대한 도구는 Arnold, Leary, Wolff와 Acker(1991)에 의해 제작된 Parenting Scale이 사용되었다. 본 도구는 총 21문항이며, 하위영역은 세 영역으로 나뉘어져 방임성, 과잉반응성, 언어의 상황적 표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에 문항들의 예를 보면 방임성에서는 '외출시 또는 손님이 방문했을 때 평소보다 너그럽게 아이를 나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 | 부(父) (N=220) | 모(母) (N=220) |
|------|--------------|-----------------|-----------------|
| 평균연령 | | 37.68세 | 34.6세 |
| 교육정도 | 고졸이하 | 1.5%(3명) | 1.8%(4명) |
| | 고졸 | 31.4%(69명) | 45.9%(101명) |
| |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 13.4%(30명) | 19.5%(43명) |
| | 대졸 | 43.7%(96명) | 30.1%(66명) |
| | 대학원졸 | 10.0%(22명) | 2.7%(6명) |
| 직업 | 회사원 | 55.9%(123명) | 3.2%(7명) |
| | 중소기업경영주 | 8.2%(18명) | |
| | 상인 | 11.4%(25명) | 2.7%(6명) |
| | 교육자 | 4.5%(10명) | 6.4%(14명) |
| | 건축업 | 6.4%(14명) | |
| | 공무원 | 4.5%(10명) | 2.7%(6명) |
| | 주부 | 0.4%(1명) | 77.3%(170명) |
| | 서버비즈니스 | 3.7%(8명) | 2.3%(5명) |
| | 기타 | 5.0%(11명) | 5.4%(12명) |
| 계 | | 100%(220명) | 100%(220명) |

〈표 2〉 측정도구의 문항수와 내적일치도(Cronbach's α)

| 척도 | 문항수 | 신뢰도 |
|---------|-----|-----|
| 방임성 | 9 | .67 |
| 과잉반응성 | 5 | .74 |
| 상황적 표현성 | 7 | .66 |
| 전체 | 21 | .73 |

무관다', 과잉반응성에서는 '아이를 꼭 움켜지거나 신체적인 체벌을 가한다', 언어사용의 상황적 표현성에서는 '아이와 길게 언쟁을 벌인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의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총 점수의 범위는 21점부터 10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효율적인 훈육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하위영역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적이고, 과잉반응적이며, 언어표현이 장황한 것을 뜻한다. 척도의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2) 생활환경의 질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부모가 느끼는 삶 전반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Andrews와 Withey(1976)가 개발한 Quality of Life Scale의 10문항이 사용되었다. 본 도구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 치안(안전)만족도, 자아성취만족도, 거주지만족도, 자아평가도, 재정만족도, 건강만족도, 생활수준만족도(소유하고 있는 집, 자동차, 가구 등)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아주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대체로 불만족' (3점), '대체로 만족'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 (6점)으로 평정하는 Likert형 척도이다. 총 점수 범위는 10~60점 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인 내적일치도(Cronbach's α) 계수는 .83이었다.

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 백분율이 구해졌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이 산출되었다. 또한 지각된 생활환경의 질과 자녀훈육방법에 있어 부(父)와 모(母)의 차이점, 부모의 교육정도와 가정의 소득에 따른 자녀 훈육방법의 차이와 생활환경의 질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검증이 이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녀훈육방법과 생활환경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가 산출되었다.

III. 결과

1. 부(父)와 모(母)가 지각하는 생활환경 질간의 관계

부(父)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과 모(母)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과 어머니가 지각하는 생활환경 질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r=.34, r<.001$)을 보였으며, 하위영역에서도 건강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17~.34의 의미있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표 3〉 부모가 지각한 생활환경의 질

| | 상관계수 (父: n=220, 母: n=220) |
|-------------|------------------------------|
|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 .23** |
| 결혼만족도 | .23** |
| 직업만족도 | .17* |
| 치안(안전)만족도 | .22** |
| 자아성취만족도 | .18** |
| 거주지만족도 | .33*** |
| 자아평가도 | .23** |
| 재정만족도 | .34*** |
| 건강만족도 | -.01 |
| 생활수준만족도 | .31*** |
| 전체(생활환경의 질) | .34*** |

* $p<.05$, ** $p<.01$, *** $p<.001$

아버지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과 어머니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에 있어 일정부분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2. 부모가 지각한 생활환경의 질

지각된 생활환경의 질에 있어 부(父)와 모(母)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환경의 질에 있어 아버지의 평균값(M=38.92, SD=5.47)이 어머니의 평균값(M=38.01, SD=6.0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t=2.03, p<.05). 이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생활환경을 질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위영역별로 보면 결혼만족도(t=4.90, p<.001), 치안(안전)만족도(t=2.87, p<.01), 자아평가도(t=2.38, p<.05)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일하게 재정만족도(t=-2.78, p<.01)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1)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생활환경의 질

부모교육정도에 따라 부모가 지각하는 생활환경 질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 부모가 지각한 생활환경의 질

| | 부(父) | 모(母) | t값 |
|-------------|------------------|------------------|---------|
| | M(SD) (N=220) | M(SD) (N=220) | |
|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 4.23(.81) | 4.21(.79) | .337 |
| 결혼만족도 | 4.81(.84) | 4.45(.90) | 4.90*** |
| 직업만족도 | 4.02(.92) | 4.06(.86) | -.586 |
| 치안(안전)만족도 | 2.91(.95) | 2.68(.93) | 2.87** |
| 자아성취만족도 | 3.64(.95) | 3.57(.96) | .886 |
| 거주지만족도 | 4.08(1.0) | 3.95(.99) | 1.58 |
| 자아평가도 | 3.77(.97) | 3.58(.95) | 2.38* |
| 재정만족도 | 3.57(.93) | 3.76(.89) | -2.78** |
| 건강만족도 | 3.93(.89) | 3.88(.98) | .561 |
| 생활수준만족도 | 3.88(.86) | 3.91(.90) | -.456 |
| 전체(생활환경의 질) | 38.92(5.47) | 38.01(6.02) | 2.03* |

*p<.05, **p<.01, ***p<.001

<표 5> 부모교육정도에 따른 생활환경 질의 차이

| 교육정도 | 생활환경 | 부(父) M(SD) | 모(母) M(SD) |
|--------------|----------------------------|-------------------------|---------------|
| | 부(父) | 전문대졸 또 대학중퇴 이하(N=97) | 38.25(5.44) |
| 대졸 이상(N=117) | | 39.79(5.31) | 38.31(5.57) |
| | t값 | -2.05* | -.41 |
| 모(母) | 고졸 이하(N=101) | 38.00(5.47) | 37.11(6.50) |
| | 전문대졸 또는 대학 중퇴 이상(N=113) | 39.83(5.30) | 38.95(5.49) |
| | t값 | -2.49* | -2.24* |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교육 정도가 대졸 이상인 아버지(M=39.79, SD=5.31)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M=38.25, SD=5.44)의 경우보다 생활환경의 질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t=-2.05, p<.05), 아버지의 교육정도에 따라 어머니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교육정도가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이상인 어머니(M=38.95, SD=5.49)는 그 이하의 교육정도를 가진 어머니(M=37.11, SD=6.50)보다 생활환경의 질을 높게 지각하였으며(t=-2.49, p<.05), 어머니의 교육정도에 따라 아버지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4, p<.05). 즉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고졸 이하인 남편(M=39.83, SD=5.47)은 전문대졸 또는 대학 중퇴 이하의 교육정도를 가진 어머니의 남편(M=38.00, SD=5.30)보다 더 높게 생활환경의 질을 지각한다는 것이다.

2) 가정소득에 따른 생활환경 질의 차이

가정의 소득에 따라 부모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의 경우 가정의 소득에 따라 생활환경의 질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재정만족도와 생활수준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경제적 수준이 상(上)으로 분류된 가정(월 평균 가정 수입 200만원 이상)

〈표 6〉 가정소득에 따른 생활환경 질의 차이

| 생활환경 | 부(父)M(SD) | | t값 | 모(母)M(SD) | | t값 |
|-------------|-----------------|-----------------|----------|-----------------|-----------------|----------|
| | 하(下) (N=120) | 상(上) (N=100) | | 하(下) (N=120) | 상(上) (N=100) | |
|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 4.21(.89) | 4.25(.72) | -.399 | 4.02(.83) | 4.43(.69) | -4.00*** |
| 결혼만족도 | 4.83(.92) | 4.79(.75) | .396 | 4.34(.89) | 4.59(.90) | -2.00* |
| 직업만족도 | 3.91(.95) | 4.15(.87) | -1.95 | 3.97(.87) | 4.18(.84) | -1.85 |
| 치안(안전)만족도 | 2.98(.99) | 2.83(.90) | 1.13 | 2.66(1.00) | 2.71(.84) | -.386 |
| 자아성취만족도 | 3.54(1.03) | 3.76(.85) | -1.67 | 3.43(.99) | 3.73(.89) | -2.28* |
| 거주지만족도 | 4.04(1.12) | 4.12(.84) | -.585 | 3.86(1.03) | 4.07(.94) | -1.58 |
| 자아평가도 | 3.66(1.02) | 3.91(.90) | -1.91 | 3.44(.94) | 3.75(.93) | -2.41* |
| 재정만족도 | 3.36(.96) | 3.82(.84) | -3.74*** | 3.52(.95) | 4.06(.70) | -4.73*** |
| 건강만족도 | 3.93(.89) | 3.93(.88) | -.036 | 3.81(1.02) | 3.96(.91) | -1.14 |
| 생활수준만족도 | 3.71(.90) | 4.09(.77) | -3.33** | 3.72(.98) | 4.15(.72) | -3.67*** |
| 전체(생활환경의 질) | 38.16(5.99) | 39.67(4.88) | -2.01* | 36.76(6.37) | 39.63(5.17) | -3.61*** |

*p<.05, **p<.01, ***p<.001

의 아버지는 하(下)로 분류된 가정(월 평균 가정수입 200만원 미만)의 아버지에 비하여 생활환경의 질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하위영역인 재정만족도와 생활수준만족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는 가정의 소득에 따라 생활환경의 질과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 자아성취만족도, 자아평가도, 재정만족도, 생활수준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경제적 수준이 상(上)으로 분류된 가정(월 평균 가정수입 200만원 이상)의 어머니는 하(下)로 분류된 가정(월 평균 가정수입 200만원 미만)의 어머니에 비하여 생활환경의 질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 자아성취만족도, 자아평가도, 재정만족도, 생활수준만족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5. 부모의 자녀훈육방법

부모의 자녀훈육방법에 있어 부(父)와 모(母)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자녀훈육방법 점수에 있어 어머니의 평균값(M=55.15, SD=8.37)이 아버지의 평균값(M=52.30, SD=7.6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t=-4.31, p<.001). 이는

아버지의 훈육방법이 어머니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 영역별로 차이를 비교해 보면, 방임성을 제외한 과잉반응성과 언어의 장황적 표현 영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모(母)가 부(父)보다 자녀훈육에 있어 더 과잉반응적(t=-4.74, p<.001)이며, 언어 표현에 있어 더 장황(t=-6.32, p<.001)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부모의 교육 정도와 가정의 소득에 따른 자녀훈육방법

부모의 교육정도과 자녀훈육방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자녀훈육방법의 차이는 부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가정의 소득에 따른 자녀훈육방법의 차이를

〈표 7〉 부(父)와 모(母)의 자녀훈육방법

| 훈육방법 | 부(父)M(SD) (N=220) | 모(母)M(SD) (N=220) | t값 |
|---------|----------------------|----------------------|----------|
| 방임성 | 22.07(4.97) | 21.58(4.40) | 1.20 |
| 과잉반응성 | 13.88(3.56) | 15.30(3.26) | -4.74*** |
| 장황적 표현성 | 16.34(3.51) | 18.28(3.65) | -6.32*** |
| 전 체 | 52.30(7.69) | 55.15(8.37) | -4.31*** |

*p<.05, ***p<.001

〈표 8〉 가정의 소득에 따른 부모의 자녀훈육방법

| 훈육방법 | 부(父)M(SD) | | t값 | 모(母)M(SD) | | t값 |
|---------|-----------------|-----------------|-------|-----------------|-----------------|--------|
| | 하(下) (N=120) | 상(上) (N=100) | | 하(下) (N=120) | 상(上) (N=100) | |
| 방임성 | 21.70(5.08) | 22.52(4.86) | -1.09 | 21.05(4.55) | 22.27(4.14) | -2.06* |
| 과잉반응성 | 13.97(3.45) | 13.87(3.60) | 1.21 | 15.76(3.31) | 14.72(3.14) | 2.33* |
| 상황적 표현성 | 16.11(3.55) | 16.56(3.45) | -2.05 | 18.50(3.79) | 17.97(3.48) | 1.07 |
| 전 체 | 51.80(7.66) | 52.94(7.76) | -.937 | 55.31(8.96) | 54.96(7.68) | .306 |

*p<.05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는 가정의 소득에 따라 훈육방법에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는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엄격성과 과잉반응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경제적 수준이 상(上)으로 분류된 가정(월 평균 가정 수입 200만원 이상)의 어머니는 하(下)로 분류된 가정(월 평균 가정수입 200만원 미만)의 어머니에 비하여 덜 방임적이며 과잉반응적인 훈육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은 가정의 어머니는 소득이 낮은 가정의 어머니보다 과잉반응을 적게 보이는 효율적인 훈육을 하는 반면, 방임성에서는 덜 엄격한 비효율적인 자녀훈육방식을 사용하였다.

7. 아버지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과 자녀훈육 방법

아버지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과 자녀 훈육방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과 자녀 훈육방법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r=-.14$, $p<.05$)를 보였다. 즉 아버지가 생활환경의 질을 높게 지각할수록 효율적인 자녀훈육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훈육방법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생활환경의 질과 언어의 상황적 표현성 영역에서만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r=-.20$, $p<.01$)를 보였다. 즉 아버지가 생활환경의 질을 낮게 지각할수록 자녀 훈육시 상황하게 설명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활환경 질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전체 훈육방법과 결혼만족도($r=-.17$, $p<.05$), 직업만족도($r=-.15$, $p<.05$), 건강만족도($r=-.20$, $p<.01$)와 의미있는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 건강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는 효율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환경 질의 하위영역과 훈육방법의 하위영역에서는 건강만족도와 과잉반응성($r=-.21$, $p<.01$) 그리고 언어의 상황적 표현성($r=-.22$, $p<.001$) 사이에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결혼만족도($r=-.22$, $p<.01$)와 직업만족도($r=-.18$, $p<.01$)는 언어의 상황적 표현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9〉 생활환경의 질과 아버지 훈육 방법과의 상관계수

| 생활환경의 질 | 훈육 방법 | 방임성 | 과잉 반응성 | 상황적 표현성 | 전 체 |
|-------------|-------|------|--------|---------|--------|
|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 | -.08 | -.05 | -.09 | -.12 |
| 결혼만족도 | | -.03 | -.12 | -.22** | -.17* |
| 직업만족도 | | -.05 | -.08 | -.18** | -.15* |
| 치안(안전)만족도 | | .11 | -.00 | -.11 | -.02 |
| 자아성취만족도 | | -.04 | -.10 | -.07 | -.11 |
| 거주지만족도 | | -.07 | -.01 | -.09 | -.09 |
| 자아평가도 | | -.01 | -.07 | -.04 | -.06 |
| 재정만족도 | | -.00 | -.05 | -.05 | -.04 |
| 건강만족도 | | -.00 | -.21** | -.22*** | -.20** |
| 생활수준만족도 | | -.01 | -.08 | -.16* | -.12 |
| 전체(생활환경의 질) | | -.00 | -.11 | -.20** | -.14* |

*p<.05, **p<.01, ***p<.001

8. 어머니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과 자녀훈육 방법

어머니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과 훈육 방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과 자녀 훈육방법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 관계($r=-.26, p<.001$)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가 생활환경의 질을 높게 지각할수록 효율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훈육방법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생활환경의 질과 방임성($r=-.26, p<.001$), 언어표현에 대한 장황성($r=-.28, p<.001$) 영역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어머니가 생활환경의 질을 낮게 지각할수록 자녀훈육에 있어 방임적이며 언어표현에 있어 장황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활환경 질의 하위영역과 어머니의 전체 훈육방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치안(안전)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하위 영역에서 $-.13\sim-.25$ 의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 자아성취만족도, 거주지 만족도, 자아평가도, 재정만족도, 건강만족도, 생활수준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효율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환경 질의 하위영역과 훈육방법의 하

위영역에서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방임성과 부적 상관관계($r=-.13, p<.05$)를 보였으며, 직업만족도와 치안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과잉반응성과 $-.15\sim-.30$ 의 의미있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언어의 장황적 표현성은 치안만족도와 거주지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15\sim-.24$ 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의 요약 및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과 어머니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 사이에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생활환경의 많은 부분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족구성원의 공통 관심사로 서로 상호협력을 통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둘째,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생활환경의 질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안녕감을 보고한다는 선행연구(Greenberger & O'Neil, 1993)와 기혼여성의 삶의 질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난 점과 일치되는 결과이다(김정자 외, 1998). 한편 본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는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있어 한계점이 있으나, 가정생활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관련문제, 가정경제문제, 친척관련문제, 자신역할문제에 대해 더 높게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난(김진희·김경신, 1998) 결과를 참조할 때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머니에게 부여되는 역할이 과중한 것으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셋째, 부모의 교육 정도가 높은 경우 생활환경의 질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이 결과는 부모 모두의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김재경과 문숙재

<표 10> 생활환경의 질과 어머니 훈육 방법과의 상관계수

| 생활환경의 질 \ 훈육 방법 | 방임성 | 과잉 반응성 | 장황적 표현성 | 전 체 |
|-----------------|---------|---------|---------|---------|
|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 -.13* | -.21** | -.16* | -.22** |
| 결혼만족도 | -.12 | -.19** | -.19** | -.22** |
| 직업만족도 | -.07 | -.11 | -.15* | -.14* |
| 치안(안전)만족도 | -.00 | -.11 | -.10 | -.08 |
| 자아성취만족도 | -.01 | -.15* | -.16* | -.13* |
| 거주지만족도 | -.09 | -.15* | -.09 | -.15* |
| 자아평가도 | -.05 | -.30*** | -.24*** | -.25*** |
| 재정만족도 | -.03 | -.18** | -.17* | -.16* |
| 건강만족도 | .01 | -.23** | -.21** | -.18* |
| 생활수준만족도 | -.08 | -.21** | -.20** | -.21** |
| 전체(생활환경의 질) | -.26*** | -.08 | -.28*** | -.26*** |

* $p<.05$, ** $p<.01$, *** $p<.001$

(1992)의 연구와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밝힌 성혜영과 임정빈(1994) 보고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밝혀진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과는 관계가 없는 반면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아버지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정도에 의해 아버지의 생활환경이 일정부분 조성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넷째, 가정의 소득에 따라 부모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에 있어 월 평균 가정 수입 200만원 이상 아버지는 월 평균 가정수입 200만원 미만의 아버지에 비하여 생활환경의 질과 재정만족도 그리고 생활수준만족도에서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도 월 평균 가정 수입 200만원 이상인 경우 생활환경의 질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 자아성취만족도, 자아평가도, 재정만족도, 생활수준만족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백주현(199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다섯째, 자녀훈육방법에 있어 부(父)와 모(母)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과잉반응적이며, 언어 표현에 있어 더 장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우선 부모의 성별에 따른 자녀훈육방법의 근본적인 차이로 추측할 수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생물학적 특성 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습득된 가치관 및 태도 등의 차이가 자녀훈육방법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녀 양육과 훈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차이로 인한 자녀양육스트레스 측면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즉 아버지의 경우 직장생활로 인하여 자녀양육을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일임

하거나(양득주, 1988),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의 일대일 상호작용의 빈도가 적고(Lamb & Oppenheim, 1989; Pleck, 1984), 직접적인 자녀 양육 참여보다는 여가활동이나 아동의 신체 발달을 위한 놀이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Marsiglio, 1991) 선행연구결과들을 비추어 볼 때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에게 비해 높을 수 있으며, 자녀훈육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비교하여 더 일상적이며 반복적일 수 있다. 그 결과로써 어머니의 훈육방법은 아버지보다 비효율적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또한 McBride(1991)와 Levant와 Doyle(1983)의 연구에서 아버지는 부모 교육을 통하여 부모됨의 자신감과 아동과의 대화기술의 향상, 그리고 부모 역할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 점을 감안할 때 아버지를 포함한 부모교육은 아버지 측면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아버지를 주제로 한 교육 방안 모색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여섯째, 자녀훈육방법에 있어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선행 연구(문혁준, 1998)에서 부모의 학력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반면 경제적 수준은 주요한 변인으로 밝혀진 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결과는 가정의 소득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가정의 소득이 낮은 어머니보다 더 방임적인 훈육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점이다. 이 결과는 가정의 소득수준, 어머니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스트레스, 그리고 방임적 훈육방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추후

에 이 관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밝혀내는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끝으로, 부모가 생활환경의 질을 높게 지각할 수록 효율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문혁준, 1998), 부모의 훈육방법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는 단순한 부모교육의 차원이 아니라 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결혼만족도·직업만족도와 부모훈육방법간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높을 수록 효율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부모역할만족도와 부모-자녀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Rogers & White, 1998; Stoneman, 1989; Greenberger & Goldberg, 1989) 선행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아버지의 훈육방법과 어머니의 훈육방법에 관련된 생활환경 질의 하위영역이 다른 점을 비추어 볼 때 가족상담 또는 부모교육 계획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차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기초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에 있어서 연구대상이 부산지역에 국한되었고, 부모가 모두 존재하는 양부모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혼가정과 기혼여성의 취업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편부모 가족과 취업모 가족을 포함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며, 또한 양부모 가족과 편부모 가족 또는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생활환경의 질 측면에서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그에 따른 자녀훈육방법을 관련 지어 두 변인간의 관계를 좀 더 다각적 각도에서 살펴보는 추후연구가 기대된다.

둘째, 응답의 신뢰도 문제이다. 즉 부모가 답한 질문지를 근거로 산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질문지 표기 당시 부모-자녀와의 관계 또는 부모의 당시 전반적인 기분에 의해 질문지 응답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며, 또한 부모가 질문지

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거나 또는 상대방을 의식한 부정확한 응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문지법외에 관찰법과 면접법을 병행한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훈육도구는 서양 문화와 개념을 근거로 제작되었으므로 한국의 문화맥락에 적용시키는데 있어 타당도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으며, 선행연구의 고찰에 있어서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훈육에 관련된 연구도구는 훈육방법의 기술적인 측면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훈육태도를 측정하고 분류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 이 분야에 다양한 도구의 개발과 이를 통한 축적된 연구결과가 요청된다.

넷째, 부모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과 훈육방법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고찰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후속연구에서 요구된다. 한 예로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현대 사회의 가족은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 중요성에 의의를 부여하고 있으며, 주부가 인지하는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여가활동 참여도(홍성희, 1996)인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의사소통도가 가정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이정우·윤현희, 1998; 이명숙, 1995)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비취업주부가 지각하는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점을 감안하여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 선정에 있어 여러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생활환경의 질적 측면이 날로 강조되는 시점에서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들과 훈육방법의 기술적 측면들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훈육방법을 좀 더 거시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시에 비교하고 고찰한 본 연구는 신세대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점차 평등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어머니의 주된 책임이던

자녀양육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 역할 부담으로 이양되어 가는 사회적 추세와 요구를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父)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과 모(母)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2. 생활환경의 질을 지각하는데 있어 부(父)와 모(母)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생활환경의 질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한편 하위영역에서는 결혼만족도, 치안(안전)만족도, 자아평가도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높게 지각하였으며, 재정만족도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게 지각하였다.
3. 부모의 교육정도와 가정의 소득에 따라 부모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4. 자녀훈육방법에 있어 부(父)와 모(母)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훈육방법에 있어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가정의 소득에 따른 차이는 있었다.
5.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은 자녀훈육방법과 관련이 있었다. 즉 부모가 생활환경의 질을 높게 지각할수록 더 효율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였다.

■ 참고문헌

- 1) 김명자(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445-54.
- 2) 김정자 · 김경연 · 김선희 · 정영숙 · 심혜숙 · 최원철 · 최순 · 문소정(1998). 한국 기혼여성의 일상적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II): 한국기혼여성의 삶의 질 실태 및 영향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6(12), 87-104.
- 3) 김재경 · 문숙재(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0), 53-74.
- 4) 김진희 · 김경신(1998).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 대한가정학회지, 36(8), 63-76.
- 5) 문혁준(1998).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1), 91-101.
- 6) _____(1999a). 아동기의 부모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9), 141-151.
- 7) _____(1999b). 부와 모의 자녀훈육방법에 관한 비교 연구. 생활과학 전공자의 사회진출과 사회적 기여. 대한가정학회.
- 8) 민현숙 · 정영숙(1998). 아동기 아버지의 생활만족수준과 역할수행도. 한국영유아보육학, 10, 281-305.
- 9) 박영애 · 황옥경(1997).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족 지지와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과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15(1) 225-237.
- 10) 백주현(1990). 여가선택 행동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성혜영 · 임정빈(1994). 도시주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 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39-251.
- 12) 양득주(198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취학전 아동의 성 특성 고정관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이광규(1989). 한국의 가족제도. 퇴계학보, 61.
- 14) 이명숙(1995). 도시 전업주부의 가치지향성 · 가정관리전략 · 가정관리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5) 이정우 · 윤현희(1998). IMF 관리 체제이후 도시 취업 · 비취업 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 비교연구.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지, 13, 3-29.
- 16) 이종숙(1989). 확대기 가정의 가정생활만족.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이주리(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 환경과 역량지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8) 장병옥(1997). 취업주부의 부부역할수행, 가정생활 기여감 및 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9) 최경순(199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4(2), 115-135
- 20) 최규련(1993). 가족생활만족.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가족학. 하우출판사
- 21) 최외선 · 송현숙(1991). 도시주부의 자아긍정감과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4), 99-114.
- 22) 하재구(1986). 서울시민의 삶의 질의 실태와 시 정부의 공공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3) 홍성희(1996). 주부의 가족여가 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71-84.
- 24) Allen, L., & Majidi-Ahi, S. (1989). Black American children. In J. T. Gibbs & L. N. Huang (Eds.), *Children of color* (pp. 148-178). San Francisco: Jossey-Bass.
- 25) Andrews, F. M., & Withey, S.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ntium Press.
- 26) Arnold, D. S., O'Leary, S. G., Wolff, L. S., & Acker, M. M. (1993). The parenting scale: A conduct disordered boys: Who effects whom. *Developmental Psychology*, 22, 604-609.
- 27)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28) Bergen, E. (1990).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domestic labor: An investigation of husbands' participation*.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Univ. of Wisconsin, NSFS working paper, 36, CDE, Univ. of Wisconsin-Madison.
- 29) Bridge, L. J., Connell, J. P., & Belsky, J. (1988).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nd infant-father interaction in the strange situation: A component process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92-100.
- 30) Bringen, Z., & Robinson, J. (1991). Emotional availability in mother-child interactions: A reconceptualization for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1, 258-271.
- 31) Bubolz, M. M., Eicher, J. B., Evers, S. J., & Sontag, M. S. (1980). A human ecological approach to quality of life: Conceptual framework and results of preliminary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7, 103-136.
- 32) Clarke-Stewart, K. A. (1978). And daddy makes three: The father's impact on the mother and young child. *Child Development*, 49, 466-478.
- 33) Clarke-Stewart, K. A. (1980). The father's contribution to children's cognitive and social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In F. A. Pedersen (Ed.), *The father-infant relationship: Observational studies in the family setting* (pp. 111-146). New York: Praeger.
- 34) Crockett, L. J., Eggebeen, D. J., & Hawkins, A. J. (1993). Father's presence and young children's behavioral and cognitive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14(3), 39-57.
- 35)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36) Fauber, R., Forehand, R., Thomas, A. M., & Wierson, M. (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23.
- 37) Fox, R. L. (1995). Maternal factors related to parenting practice, developmental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6, 431-441.
- 38) Gecas, V. (1979).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socialization: In W. R. Burr, R. Hill, F. I. Nye, & Reiss, I. L.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pp. 365-404). New York: Free Press.
- 39) Gest, S. D., Neeman, J., Hubbard, J. J., Masten, A. S., & Tellegen, A. (1993). Parenting quality, adversity, and conduct problems in adolescence: Testing process oriented models of resili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663-682.

- 40) Glenn, N. D. (1975). The contribution of marriage to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les and fem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594-600.
- 41) Greenberger, E., & Goldberg, W. A. (1989). Work, parenting, and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5, 22-35.
- 42) Greenberger, E., & O'Neil, R. (1993). Spouse, parent, worker, parenting, and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81-197.
- 43) Hart, C. H. (1994). Comparative study of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rategies. *Psychological Reports*, 74, 495-498.
- 44) Hart, C. H., DeWolf, D. M., Wozniak, P., & Burts, D. C. (1992).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yles: Relations with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al orientations and peer status. *Child Development*, 63, 879-892.
- 45) Holden, G. W., & Zambarano, R. J. (1992). Passing the rod: Similarities between parents and the young children in orientations toward physical punishment. In I. E., Sigel, A. V. McGillicuddy-DeLisi, & J. J. Goodnow (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143-172). Hillsdale, NJ: Erlbaum.
- 46) Kawai, H. (1981). Violence on the home: Conflict between two principles-maternal and paternal. *Japan Quarterly*, 28.
- 47) Krevans, J., & Gibbs, J. (1996). Parents' use of inductive discipline: Relations to children's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3263-3277.
- 48) Lamb, M. E. (1986).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New York: Wiley.
- 49) Lamb, M. E. (1997). *The role of father in child development* (3rd ed). New York: Wiley.
- 50) Lamb, M. E., & Oppenheim, D. (1989). Fatherhoo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Five years of research. In S. H. Cath, A. Gurwitt, & L. Gunsberg (Eds.), *Fathers and their families* (pp. 11-26). Hillsdale, NJ: Analytic Press.
- 51) Lerner, J. V., & Galambos, N. L. (1985). Maternal role satisfactio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 temperament: A proc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157-1164.
- 52) Levant, R. F., & Doyle, G. F. (1983). An evaluation of a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fathers of school-aged children. *Family Relations*, 32, 28-37.
- 53)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San Diego: Harcourt Brace Javanovich.
- 54) Marsiglio, W. (1991). Parent engagement activities with minor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973-986.
- 55) McBride, B. A. (1991). Parent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s for fathers: Outcome effects on paternal involve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67, 73-85.
- 56) McCord, W., McCord, J., & Howard, A. (1961). Familiar correlates of aggression in non-delinquent male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79-93.
- 57) Park, M. S. (1992). Ecological modeling of quality of life among middle-aged husbands and wive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58) Patterson, G. R., Reid, J. B., & Dishion, T. J. (1992). *Antisocial Boys*. Eugene, OR: Castalia.
- 59) Patterson, G. R. (1976). The aggressive child: Victim and architect of a coercive system. In E. J. Mash, L. A. Hamerlynck, & L. C. Handy (Eds.), *Behavior modification and families* (pp. 267-316). New York: Brunner/Mazel.
- 60) Pleck, J. H. (1984). *Working wives and family well-being*. Beverly Hills, CA: Sage.
- 61) Rogers, S. J., & White, L. K. (1998). Satisfaction with parenting: The role of marital happiness,

- family structure, and parents'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293-308.
- 62) Skinner, E. A. (1985). Determinants of mother's sensitive and contingent-responsive behavior: The role of child-rearing beliefs and socioeconomic status.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51-8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63) Snyder, J. J. (1977). Reinforcement analysis of interaction in problem and nonproblem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6, 528-535.
- 64) Stoneman, Z. (1989). Marital quality, depression, and inconsistent parenting: Relationship with observed mother-child confli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105-177.
- 65) Webster-Stratton, C. (1990). Stress: a potential disrupter of parent perceptions and family interac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302-312.
- 66) Willis, W. (1992). Families with African American roots. In E. W. Lynch & M. J. Hansons (Eds.), *Developing cross-cultural competence: A guide for working with you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pp. 121-150). Baltimore: Brookes.